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
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0, 22)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과 좌절감으로 울고 있
는 마리아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부
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은 그녀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야’ 라고 주님께
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 * *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인봉하여 파수꾼을 세
워 지킨다 해도 생명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습
니다. 무덤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겸비는 죽었
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거짓과 횡포가 진리를 매장한다 해도 하나님
의 진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종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 * *

부활의 첫 열매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
록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승리의 부활에 동참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
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
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
- K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온 세상의 기쁜소식 예수 부활하셨다

주일 I II III부 예배 - 성찬식 찬양예배 - 음악예배로 드려

온 세상의 기쁜 소식- 예수 부활하셨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되고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오늘 새벽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교회는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교회학교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알릴 달걀과 전도지를 준비하여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음악예배로 드리게 된다.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김광신 장로)는 Dubois Theodor의 '그리스도 마지막 일곱 말씀'을 가지고 음악예배에 선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기도한다.

세계 평 · 화 음악회

19일(수) 오후 7시 우리교회에서 열려

4월19일(수)에 제38회 국가조찬기도회 전야제(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 주관)로 준비되는 세계 평 · 화음악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세계 평 · 화 음악회에는 외국에서 초빙된 귀빈, 주한 외국 대사들, 그리고 각계 각종 내국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한자리에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성대한 자리로 준비된다.

4월19일 오후 5시30분 국내의 귀빈 초청만찬이 만나홀(801호)에서 있고 7시부터 1부 헌신예배로 이종은 목사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의 헌금찬양 순서가 준비된다.

콰이어 이어지는 2부 순서로 에벤에셀 합창단의 연주로 음악회가 열린다. 에벤에셀 합창단은 국내음대 성악과 교수들로 구성된 최고수준의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일 지하 주차장은 이날 오시는 외빈들을 위해 개방하게 됨으로 우리교회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하기 바란다.

제6회 교구찬양대회 준비 한창

5월12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각 교구는 오는 5월12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리는 제6회 교구찬양대회 준비로 한창이다.

교구마다 다락방 모임을 연합으로 갖고 다락방 성경공부를 마친 후 찬양대회 준비를 위한 연습 시간으

로 삼고 있다. 교구찬양대회가 성도들의 연합과 친목의 자리로 준비되도록 기도한다.

12기 찬양대양성반 수료

13기 개강: 4월23일(주) 1시30분 601호에서

12기 찬양대양성반이 7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수료한다. 호흡과 발성 등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기본을 배우는 자리로 열리고 있는 찬양대양성반은 우리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오늘 수료하는 12기 찬양대양성반 수료자들은 각 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된다.

한편 13기 과정이 다음 주일(23일) 오후 1시30분 601호실에서 열린다.

<12기 수료자>

강지명 고영숙 김경민 김관홍 김미선 김민철 김신호 김재근 김지은 김형택 김형희 김혜진 백정순 송성식 신혜진 안선광 오승민 유관모 유선희 윤성남 윤영숙 이경혜 이동민 이승래 이승우 장애순 장인원 전미애 정영무 조정옥 최명남 최원준 최재식 편미숙 황선희 이상 35명

호산나 복지법인에 20억 출연금 내기로

우리교회는 장애인 전문대학·대학학교·방과후 교실 등 호산나 복지법인 기금으로 20억원을 출연키로 지난 9일 제직회에서 결의 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사랑의 집을 지을 터를 찾고 있는 우리교회는 법인체를 세워 공적기관으로 출발케 되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KIMCHI 세미나 자원봉사자 모집

21세기 세계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타 문화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적 갱신 운동을 통한 선교 비전의 확대와 효율적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복음 확장을 위한 국제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제 14 차 KIMCHI 신학 세미나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실 분은 사무국에 비치된 봉사지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3독> 서희숙 집사(12교구)
- <2독> 김대호 장로(8교구)
- <1독> 원용범 집사 김영희 집사(3교구)
장낙희 권사(5교구)
노송성 장로 이영옥 권사(6교구)
김숙행 권사(7교구)
김광신 장로 이인선 권사(12교구)
박도영 학생 서순녀 집사 이계자 집사(14교구)

마리아 전도회 부활절 특별행사

오늘 3부예배후

마리아전도회(회장 최미아권사)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오늘 3부 예배후 부활절 달걀을 준비하여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약 80명)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부활절 특집

부활, 우리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경의 권사(11교구)

‘말씀 새기로, 교회의 핵심인 교구를 맡아 이렇게 누워있으니 목사님과 교회에 너무 죄송할 뿐이다. 맡은 일들만 잘 마무리 하고 갈 수 있다면... 8월에 있을 로잔대회에 100여명의 참석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헌신자들이 속속히 생가기를 기도한다.’

죽음을 앞둔 당신의 일기장에는 온통 교회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떠나신지 3년입니다.

부활의 아침.

교회의 성찬예식을 위해 새벽부터 정갈하게 목욕하고 흰 와이셔츠에 흰 타이틀 매던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함경도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목숨처럼 사랑하시던 서울교회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까지 당신의 생애는 온통 예수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깨끗한 모습으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께 친절하고 병상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당신이었습니다. 힘이 닿는 순간까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심방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은 육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존재라고 하시며 남은 가족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엄히 말씀하시던 당신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어느 날, 당신은 영혼의 창을 열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아내를 위해 늘 기도하던 것처럼 복음에 빛진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어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당신이 살아서 못 다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기에 당신을 그 곳에서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픔이었던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우진숙
(서민규 학생 어머니)



촉촉한 봄비로 시작한 4월, 겨우내 숨죽였다가 곳곳에서 피어나는 봄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 3월 개교한 호산나 학교 또한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주님 사랑으로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껍질을 벗어내고 이타심이 자라나게 되는 과정들 속에 우리 호산나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들이긴 하지만 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인관계와 사회성, 언어와 융통성을 계속 계발시켜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아닌 다른 이들과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배우고 당당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혼신을 다하여 아이들 하나하나 관찰하시며 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의 세밀하고 정성스런 모습 속에서 죄인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의 부모지회가 열릴 때마다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부 예배로 이끄시는 사랑부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껏 감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회속의 냉대와 거부와 포기로 인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청하셨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자기의 영혼조차 돌아보지 못하며 바쁘게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장애가족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 한없이 연약해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이미 주님께 초대되었고 온전한 사람보다 주님의 초청 리스트에 먼저 올라가 있는 자들이라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걸 같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호산나 학교 선생님들과 사랑부 선생님들, 그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떡을 떼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호산나 학교의 한식구가 된 저희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단한 삶과 많은 인

내와 희생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소망의 기대감과 행복감으로 젖어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이사야 44:2)의 말씀들을 철저히 믿기에 ‘내 아이의 장애까지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주님 기업인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이었던 나의 자녀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던 축복의 통로가 되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아픔을 가진 애통하는 실령들에게 다가가 치유와 위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감추어 놓으신 주님 사랑의 보석을 찾아가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부활절에 우리가정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소망!

부활절의 기도

김형택 집사(12교구)

살점이 찢기는 아픔으로 신음할 때
발등에 못 박히는 주님을 떠올리게 하소서

삶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
약하고 추하여 나를 버리고 싶어질 때
하늘 입금 은총 입어
속죄된 나를 떠올리게 하소서

죄악세상 흠뻑 떠나고 싶을 때
사람 대하기가 힘겹고 두려울 때
존귀하신 이의 사랑받는 형제가 보이게 하소서

앞서고 싶고 나서고 싶어 움푹거릴 때
내 공로 억울하여 숨결 높아질 때
호산나 환호를 뒤로 하신 주를 떠올리게 하소서

꼭 이기고 싶을 때
별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빌라도 앞의 침묵을 떠올리게 하소서
'다 이루었다'

온 세상 캄캄하고 휘장이 찢어질 때
흐름이 생의 끝이 아닌
부활 천지를 소망하게 하소서

새 하늘 새 땅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주님 보혈의 손잡고
찬미하며 가게 하소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김광신 장로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침표였습니다. 유언같은 말씀이기에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백성들과 종교지도자들 모두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천국 문은 열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렸

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찬양으로 증거 하려고 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규!
배신과 버림 받으심의 현장을 찬양하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올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저녁 서울교회에서 가브리엘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살려주신 주님 위해...



서안석 집사
(1교구)

2005년 11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여권사진을 확대하여 영정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주치의로부터 위암이 생겨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과 두려움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준비된 영정사진이 없어서 이상한 모습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저 역시 우리 가족이 사진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미리 영정사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복수술이 아닌 내시경적 위점막 절제술로서 위암치료를 할 수 있었음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간암이 생겨서 1년 반 동안에 세 차례의 화학항암 색전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색전술과 항암치료로는 간암을 완치할 수 없으며 단지 치료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판단했고 색전술 시술과 항암치료는 상당한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여 간 이식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생체 간 이식 수술은 한 사람의 간 제공자에게서 부분적으로 간을 절제하여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나 저의 경우는 두 사람의 간을 각각 절제한 후 병합하여 이식하는 꽤 어려운 수술방식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는 온통 두려움과 불안, 공포, 근심,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날(2002.9.22) 주일 예배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공교롭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여러 가지의 고통,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근심, 걱정,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결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의 설교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생명 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만민에게 전도

군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다



지난 4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육군사관학교 교회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지휘관의 길을 걷기까지 4년간 힘써 공부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는 '육군사관학교 진중 합동세례식'이 서울교회의 후원으로 거행된 것이다.

이 날 세례 받은 생도와 장병은 육사교회당을 가득 메운 생도와 관계자들의 축하 속에 입장하여 함께 예배 드리며 축하했다.

이중윤 목사는 '요한의 세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며 세례는 일생에 단 한번 받으며 죄를 자복한 다음에 받는 것으로 회개한 사람의 거듭난 증표라고 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자신을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도 세례 받아야 함을 모델로 보여주었다고 했다. 세례란 말의 어원은 변한다

는 뜻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지고 소속이 변하는 것으로 세례 받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치관이 변해야 하며 목표가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세례식에 장병들은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했다.

이들 신앙의 젊은이들을 보며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해 우리교회가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군복음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한다.

2020년까지 국민의 75%를 복음화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복된 조국이 되기를 주님의 고난 주간에 부활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한다.

유태서(편집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최정순 권사 (3교구)

부족한 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잊을 수 있겠

습니까...

2001년 추석 이틀 전에 음식점(만민)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뇌대동맥류)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곳에서 뇌수술 전문의를 소개받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수술 하루 전 가족들과 전문의 상담내용 중에 살 수 있는 확률은 50%이며 살아도 35%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족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

었습니다.

가족들은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 수술하는 것과 의식을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은 수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당시 의식이 없었던 저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중환자실에 있는 저는 희미하게 이중윤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기도해주시기 위해 출입도 어려운 중환자실로 들어오셔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기도가 끝난 후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이중윤 목사님과 장로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겁니다. 이젠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같은 일이지요.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찬송가 404장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

고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포근히 감싸주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겨우 30일 만에 퇴원할 수 있게 인도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저는 5년째 정상인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서울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막내 아들이 섬기고 있었던 청년부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저는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교회를 위해 모퉁이들이 되고자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미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부활은 아니기에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편지 왔어요-파리

부활의 영광!



최유연 (청년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부활절이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방학을 하고, 서로 조그만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곳 파리에서는 고난주간에는 한인교회 연합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고 부활절 저녁에는 연합찬양제를 엮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헨델의 메시아를 여러교회가 조가 되어 1,2,3부를 나누어서 하는 특별한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1년에 한번, 파리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연합할 때에 더욱 힘도 있으며, 하나님도 기뻐하시기에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있는 저에게는 당연히 이럴 때 서울교회가 그리워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부활절 찬양은 제가 섬기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한다는 소식을 접하니 서울교회에서 음악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글로나마 서울교회와 나누게 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전국시민양성

청년부 - 구약의 파노라마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청년부에서는 지도 목사님을 통해 구약파노라마 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39권의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물, 사건, 장소 등을 재미있는 모션(울등)과 시청각을 통해 구약 전체의 흐름을 알기 쉽게 이해하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구약의 내용들이지만 지도를 보면서 지리적 위치도 인식하게 되고, 구약의 구조를 배우면서 우리의 과거를 발견하며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각도 열려지고 있다.

숲을 보면서 전체를 먼저 봐야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통해 성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는 시각이 열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구약의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 절감할 수 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좁은 우물만 본다면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청년부는 지금 말씀의 사모함이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말씀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체가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감사하다.

한정연(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7일(월) 탈북난민보훈운동본부 사역 7주년 감사 및 북한구원운동 2차 총회에서 설교한다.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주동재단으로부터 지난 주 서울교회에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 주간식당 봉사: 스테반회(4월16일) 권사회(4월23일)

■ 금주의 식사 및 떡 제공: 백영희 권사와 자녀일동 (고 이임희 집사를 추모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우리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자를 절약하며 나눠 쓰고 재활용하는 모범을 보이며 생활화하기 위해 본 교회 지하3층에 마련한 '나눔의 집'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역자와 이웃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다 보니 기증품이 모자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의류를 비롯한 물건을 정리하실 때 입지 않는 의류와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깨끗이 손질하여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나눔의 집에서 귀히 쓰이게 된다. 기증하는 물건은 교회 1층 사무실에 맡기시면 된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기 위하여
2.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개설 위하여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일하도록

교외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